농림축산식품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8.(일) 11:00 / 2026. 11. 9.(월) 조간 | 배포 2026. 11. 6.(금) 16:00

농업·농촌 현장애로, 지방정부와 함께 기술개발(R&D)로 해결한다

- 11월 20일까지 '지역주도 문제해결' R&D 참여 지방정부 모집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'농식품부')는 농업·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'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(R&D)'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. 이를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'지역주도 문제해결 R&D' 분야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하고 있다.

'지역주도 문제해결 R&D'는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, 민간 연구기관·농업인 등과 협력하여 기술개발부터 현장 실증, 성과 활용·확산까지 전 과정을 통합 추진하는 방식이다. 이를 통해 연구성과가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R&D사업과 차별화된다.

농식품부는 현장 밀착형 R&D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현장 수요, 국민 제안, 정책 수요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총 79건의 현장문제를 발굴하였다.

<농업 현장의 목소리(대표 사례)>

 축산 농가	"농장에 사람이 드나들 때마다 소독과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요. 소독을 빠뜨리면 바로 알려주고,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농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면서 기록도 자동으로 남겨주면 좋겠어요."
 시설원예 농가	"하우스 보온재나 개폐장치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고장 나면 사람이 끼거나 다칠까 걱정돼요. 이상을 미리 알려주고 위험할 때 작동을 멈춰주는 장치를 달 수 있으면 좋겠어요."

발굴된 현장문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13개의 후보 과제를 마련하였고, 이 중에서 총 7개 지방정부(과제)를 선정하여 과제당 최대 20억원(지방비 매칭 자금 포함)을 지원할 계획이다.

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(시·도 및 시·군·구)는 지역 현안에 적합한 과제를 선택하여 11월 20일(금)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 이후, 지방정부는 공모를 통해 실증농가 등이 포함된 민간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, 연구성과의 지역 내 활용·확산 방안 등을 담은 세부 추진계획을 2027년 1월까지 제출해야 한다. 농식품부는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.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(www.mafra.go.kr)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이와 함께, 농식품부는 청년 창업기업, 농산업체 등이 겪는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'산업화 문제해결 R&D'도 추진한다.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기술의 개선·보완 및 현장 실증을 지원하여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. 2027년에는 총 12개 과제(29억원)를 지원할 예정이며,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2027년 1월 연구개발사업 통합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.

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"이번 R&D 사업은 기존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,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민간 연구기관·농업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장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"라며, "개발된 기술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,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·확산되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농산업혁신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양미희 (044-201-2451)
		담당자	주무관	김소연 (044-201-245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